



# 군종주보

2024년 7월 28일(제1204호)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꾸준히 농업부터 시작해서, 대량 생산, 금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먹고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먹고살려는 인간의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먹고살기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농업 혁명이 식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동시에 인간은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생산이 늘어난 만큼 분쟁도 생기고, 그렇게 전쟁과 제국과 식민지가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먹고살기 참 좋은 시대라고 하더라도 환경 파괴와 인간 소외와 착취, 세계 곳곳의 분쟁처럼 먹고살기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여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갈릴래아 호수 근처에서 많은 농작물이 나지만 대부분 그 생산물은 지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현실의 한계 앞에서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꿈과 같은 기적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을 먹이고도 풍족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역지로 모시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십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잠깐의 배고픔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이를 돌보기 위해서, 미사를 통해 성체를 통해 모든 이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 물러나십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야 합니다.

너무 경쟁으로 물리지 말자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누군가가 버려지지 않도록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미사라는 자리에서 성찬을 통해 그 목소리를 다시 모읍니다.



박재훈(요셉) 신부  
제주해군(해군 제7기동전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2열왕 4,42-44
- 회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제 2 독 시** 에페 4,1-6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 복 음** 요한 6,1-15
-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다섯 번째 시집

그가 약속한 그 해에 제가 그 새 공소집에 도착하였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자마자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교우들 전체가 어떤 감정이 복받쳤는지 모르겠으나, 목을 놓아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시켰고 그들의 눈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한참만에야 그들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와 교리 문답을 익혔는지 제가 공소 방에 들어가 참고를 받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겨우 8, 9, 1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교리 문답 전체와 굉장히 긴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경문을 청산유수로 암송하여 외우는 광경이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중에도 특히 노파들이 우둔함을 무릅쓰고 열성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경문을 하루 종일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마을과 연관을 맺고 지내는 이웃 근방의 열두 가족도 이 마을 덕택으로 전부 입교하였습니다. 이 마을에 식구가 꽤 많은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천주교 교리를 들었으나 외인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신자가 되어 천주교 믿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13세 된 아이가 자기 부모와 형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미신 단지와 미신을 섬길 때 쓰는 기구 등을 내동댕이치고 깨뜨리면서 “왜 이따위 괴악한 물건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꼬마가 한바탕 소란을 피운 다음 온 집안이 천주교를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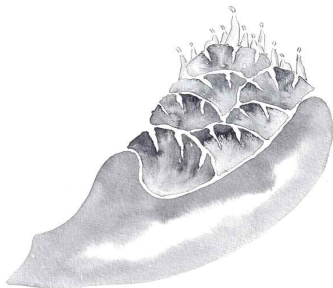
그 해에 예비 신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400명이 넘었으나, 영세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교님께서 ‘사본 문답’ (四本問答)을 전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세례성사를 주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 손 가득



적디적은 이 정성을  
이 손 가득 담습니다.

하늘에 가장 가깝게  
이 정성을.

작디작은 이 이들을  
이 마음에 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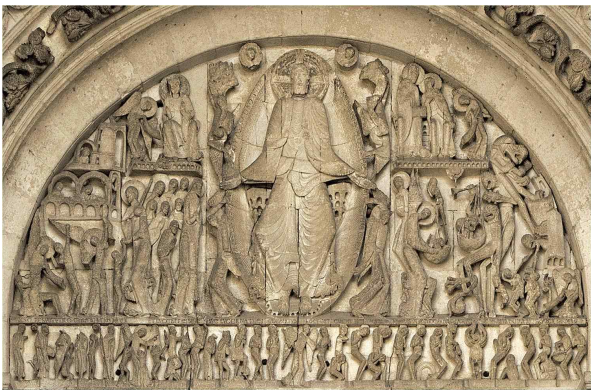
하늘에 가장 가깝게  
이 이들을.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직지 미상 / 1000년경 제작  
상 리지로 상당 / 오통, 프랑스



중앙 오른쪽 상단 세부도

▲ 중앙의 예수님 오른쪽에는 지옥이 묘사되어 있다. 천사가 저울로 망자의 죄를 가늠하고 있으며, 천사의 다리에 영혼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옆에는 악마가 저울을 지옥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 손을 올리고 있는데 한쪽 다리를 뺀이 감싸고 있고, 한 손으로는 영혼을 잡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악마는 갈고리를 이용해 영혼들을 낚아채고 있다.



중앙 오른쪽 하단 세부도

▲ 그 바로 아래에 어찌면 이 작품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 조각되어 있는데, 방금 막 관에서 깨어난 망자를 지옥의 손이 낚아채고 있는 모습이다.

영혼은 아마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는데, 이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마음의 귀를 파고든다.

김은혜(엘리시벳)



지옥의 손에 낚아채이고 있는 영혼 세부도

교구소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김발 손강윤 신부

◆ 교구장 동정

- 2024 교구 청년·청소년 대회 시작미사  
 때·곳: 7월 29일(월) 09: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교구 행사

- 2024 교구 청년·청소년 대회  
 때·곳: 7월 29일(월)~8월 2일(금), 일본 나가사키

“화해와 자유를 위한 교해상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